

# 삼암봉 자락 자자손손 부귀 이어지는 명당

■ 전라도 역사이야기

-노루골과 미암일기

### ■ 서해안시대의 보고, 신안

일반적으로 풍수지리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해안가나 섬 지방에는 명당이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명산이라 할지라도 그 산이 섬이나 바닷가에 있다면 답산을 기피하거나 폄하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요즘의 ‘풍수지리’ 관련 교욱 현장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바닷가에는 명당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니 그런 곳에서 배운 사람들이 그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일지도 모른다.

땅기운은 음맥을 따라 흐르지만 물을 만나면 멈춘다고 하는 것이 풍수지리의 일반론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대개 실개천이나 작은 강물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음양이 교합하는 의미로서의 용수배합(龍水配合)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물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해변의 작은 산(陰)은 바다나 대강수, 또는 호수처럼 큰물(陽)을 감당하기 어렵고, 음양교합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수살(水殺) 때문에 집을 짓거나 묘를 쓸 수가 없다고 단정해버린다.

### ■ 감정리, 거북이 뺨잡아 올라가는 형국

그런데 풍수지리는 논리의 학문이 아니라 이치를 깨우쳐야하는 도학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나 토끼, 그리고 개 같은 길짐승은 작은 물도 무시워하지만, 달이나 거북이, 그리고 물고기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은 오히려 대강수를 좋아하며, 개구리는 호수를 무시워하지 않는다. 바닷가는 바람을 갈무리할 수가 없어서 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당이 없다는 기존의 학설이나 풍수사들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물을 좋아하는 물형 명당이 널리 있는 것이 바닷가이다. 특히 호남지방의 도서지역에는 십여 년 전부터 바다 밑의 지표면이 조금씩 올라가고 시작하면

## 전라도 풍수가 바뀌고 있다

■ 땅의 숨결을 따라 <30>



무안 현경면의 '반월형(半月形) 안산(案山)

서 다양한 물형의 금쪽같은 혈면이 보다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땅의 기운이 산진수회(山盡水廻)의 말락(末落)에 모아진다는 후천(後天) 하원갑자(下元甲子·1984년 ~ 2043년)라고 하는 우주 또는 신의 운세와, 사회의 기층민인 소시민과 여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역의 지천태괘(地天泰卦)라고 하는 인간의 운세가 한 시대에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상승기류를 형성하는 단초로 파악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꾸어 말하면 ‘새로운 해양시대’ 또는 ‘서해안시대’의 보고로 무안군의 일부지역과 신안군의

여러 섬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풍수적 검증의 실체이다. 땅의 생기와 하늘의 서기(瑞氣)가 교합하여 생성되는 볼텍스벨트(Vortex belt)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반증(反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안군 지도면의 삼암봉(三岩峯) 아래 황금동에는 모든 꽃이 떨어져 이미 낙엽이 되어버린 늦가을에 오직 노란국화 한 송이가 단풍잎 속에 숨어 향기를 내뿜고 있다. 마치 찬 서리를 조롱하는 형국의 황국단풍형(黃菊丹楓形)이 양택으로 결혈(結穴)하여 마을 앞의 정미(丁米) 안산

을 바라보고 있는 형국인데, 장손(長孫)이 발복(發福)하여 천하의 부자가 되는 보기 드문 길지(吉地)로 아직까지 비어있다.

내양2리 둔곡저수지 아래에는 목마른 용이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의 갈룡음수형(渴龍飲水形)이 눈 가운데에 숨어 있는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름자리로 쓰고 있어서 여름철에는 잡풀이 우거진 채로 버려져 있다. 이곳은 건해행룡(乾亥行龍)에 입감입수(壬坎入首)이며, 입좌병향(壬坐丙向)의 석중토혈(石中土穴)로 자자손손 대대로 부귀가 끊이지 않는 땅이다.

감정리(甘井里)에는 거북이 한마리가 물을 마시러 샘을 찾아 올라가는 형국의 상수구형(上水龜形)이 있고, 그 아래 조비마을 남쪽 끝자락에는 양무봉총형(鸞鳳逢巖形)이 대결(大結)하였는데 곤신방(坤申方)의 ‘벌레섬’이 안산으로 부귀가 대대로 이어지는 명당이다.

### ■ 무안 달머리, 정승 나올 명혈

한편 무안군 현경면 어은동(魚隱洞)에는 신선이 칼춤을 추고 있는 모습의 선인검무형(仙人劍舞形)의 집터가 마을회관 근처에 아직까지 숨어있다. 검무산(劍舞山)의 한 자락이 경태낙맥(庚兌落脈)하여 유좌묘향(酉坐卯向)으로 결지(結地)하여 무동안(舞童案)이 되었다. 이곳에 집을 짓고 산다면 독자(獨子)가 발복하여 백자천손을 이루고, 누대에 걸쳐 재물이 넘쳐나는 터이다.

달머리(月頭里)에는 달이 서쪽으로 지는 모양의 서반월(西半月)과 초저녁에 달이 떠오르는 모습의 동반월(東半月)이 물가에 숨어있으니 천하의 명혈대지(名穴大地)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동반월은 건좌손향(乾坐巽向)으로 혈을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를 얻어 쓴다면 ‘노자’나 ‘주자’같은 성현이 나오고, 백의정승(白衣政丞)이 나와 압축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다만, 서반월은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어서 혈면(穴面)을 볼 수는 없다.

/전충주·호남대 교수·한국풍수지리학회 학술연구위원

## 조선선조때 11년간 쓴 한문일기

### 담양군 모현관에 보관중인 보물 (260호)

우리 땅이름에는 동물이름에서 연원한 것이 많다. 담양 대덕면 장산리에는 ‘노루골’이란 마을이 있다. 창평면 소재지에서 북쪽으로 오리 길에 매봉에 안겨 고즈넉한 곳에 20여 호가 사는 동네이다. 용머리를 접어들어 어귀에 다다르면 숲쟁이가 보인다.

백호등에 기댄 연계정(漣溪亭) 뒷산이 노루피(獼山)이다. 정자에서 내려다보니 고리 때 평강채씨가 심었다는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팽나무, 버드나무, 소나무가 900여 평의 연방죽과 어우러져 무릉도원을 이루고 있다. 서당골에서 내려오는 맑은 시냇물이 연지의 근원으로 숲쟁이와 함께 비보(裨補)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이곳에 보물 제 260호로 지정된 미암일기(眉岩日記)가 보관된 모현관(慕賢館)이 섬처럼 떠 있다. 후손 유근영에 따르면 연못은 200년 전께 뒷산에 묘지를 얻은 사람이 그 대가로 파주었고, 가운데로 퍼올린 흙더미로 동산을 조성하고, 1950년대 말 10여평 크기로 지었다고 한다.

미암은 해남군 진산인 금강산에 있는 바위로 선산인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이 외가 해리 출생지를 따 자호했다. 미암은 24세 때 16세



미암일기가 보관된 모현관.

홍주승씨 덕봉(德峯)을 맞이하여 장가들어 노루목양반이 되었다. 대개 호남 지역의 유학자들은 외가 또는 처가의 후원과 교유들과 사돈관계로 유명해진 경우가 많았다. 둘째 아들인 미암이 막내 딸 아내와 처가의 도움으로 선조계 급을 가르치는 대학자로 성장했음을 알려주는 자료가 11책으로 된 일기이다.

미암일기는 1567년 10월 55세 때부터 1577년 5월까지 11년에 걸쳐 거의 날마다 한문으로 기록한 것이다. 조선시대 개인일기 중 가장 방대하며, 생활사 연구에 귀한 자료가 깃들여 있고, 특히 선조실록 편찬에 중요한 사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으나 일제강점기 때 활자본으로 간행되었고, 1990년대 담양향토문화연구회(이해섭)에서 다섯 권의 한글판으로 펴냈다. 최근 담양군에서 재차 영인작업이 이뤄졌고, 정경관에 의해 단행본으로 꾸며지면서 그 진가를 더하고 있다.

마을 뒷동 덕치에서 따 호를 지은 듯한 덕봉이 미암께 1570년 보낸 편지를 펼쳐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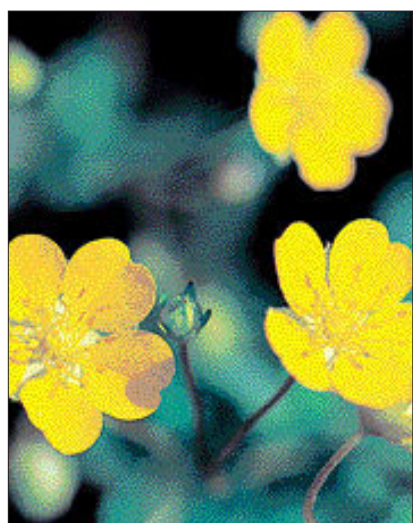
“나는 옛날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사방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당신은 만리 밖에 있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슬퍼만 했소. 그래도 나는 지성으로 예에 따라 장례를 치르면서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했지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묘를 쓰고 제사를 지내면 비록 천자식이라도 이보다 더할 순 없다’라고 했소. 삼년상을 마치고 또 만리 길을 나서 멀리 험난한 길을 갔는데 누가 모르겠소. 내가 당신한테 한 이런 지성스런 일이 바로 잊기 어려운 일이지요.”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

### ■ 전라도 방언 (29) “비도 안 옵시다 바람만 되게 부네”

표준어의 ‘(으)면서’는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 따위가 동시에 결합한 것을 나타내는 접속어미다.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본다”와 같이. 그런데 전남방언에서는 이 어미가 지역에 따라 ‘음서, -음삼, -음시러/음시로, -음시롬/-음시롬’ 등으로 변이된다. “비도 안 옵시다/음삼/음시로 바람만 되게 부네그라. 할 말은 쪼깐 쪼깐 해감시롬 회의를 해도 해사

제”와 같은 말이 우리에게 귀에 설지 않다. 전북지역에서도 대체로 ‘음서’형이 쓰이지만 이 밖에 ‘음서나’(옥구), ‘음선’(무주·임실·장수·순창 등)이 쓰인다. ‘음서나’의 ‘나’, ‘음선’의 ‘선’은 모두 보조사 ‘는’의 변이형이며, ‘음삼’의 ‘삼’도 기원적으로 ‘는’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 전라도방언의 특징적인 접속

어미 중에 ‘-간디’가 있다. 이것의 옛말은 ‘-관’이던 것이 후에 ‘-관데’로 변하였는데 대화에선 잘 쓰이지 않지만, 문법적으로는 후행절이 언제나 의문법이 따르는 제약이 있다. 이것의 방언형이 곧 ‘간디, -가니, -간’이다. “누가 왔간디/가니 저렇게 난리다우? 그 사람이 허란다고 내가 허간?”의 말뜻을 전라도 사람이면 다 알 것이다. /이돈주 전남대 명예교수



### ■ 남도 야생화

#### -딱지꽃

장미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양치바른 들관이나 독에서 무리지어 자란다. 키는 20~50cm 정도이며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개화 시기는 6~7월이다. 양치꽃과 아주 흡사하게 생겨 구분하기 힘들다. 자세히 보면 양치꽃에 비해 가늘고 연약하게 생겼다. /리규채 생태사자강

## 전기만 사용하는 태양초 고추건조기

20년 경험과 뛰어난 기술로 탄생한 최고의 유일건조기

- 1. 100% 친환경 태양열 건조 방식
- 2. 24시간 연속 건조 가능
- 3. 내열, 내습, 내충격, 내진, 내화
- 4. 안전사고 예방 장치

건조기구별 특성 및 설치방법

전국대리점모집 : 출시 기념 특가 판매

**주유일** 11월 30일 382-3008

## 서경빌딩 임대

서경빌딩 임대

구분	면적	임대료
1호	100평	주 100만원
2호	150평	주 150만원
3호	200평	주 200만원
4호	250평	주 250만원

문의: 382-3008